

<一般住宅>

神 經 性 火 災 予 防

主 婦 송 인 금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56-15>

나는 잠자리에 들기 前에 부엌을 비롯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아빠는 나를 못믿거나 하듯이 다시 한번 살피곤 한다.

부모가 이렇듯 불에 대해 神經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까지 比較的 불조심에 많은 神經을 써 오고 있는것도 事實이다.

불조심이란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집이 각별히 불조심에 神經을 쓰게된 決定的인 動機는 事實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집에서 불이 한번 났었다던가 불이 날뻔했다던가 하는것은 決코 아니고... 아빠의 보이지 않는 술신수법이 연유되었다고나 하겠다.

1년전 몹시 추운 겨울 날이었다.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밤이 되면서 강한 바람까지 불어 문풍지가 울고 유리창이 마구 흔들려 잠을 이루기가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그러나 잠깐 잠이 들었던지 나는 「땡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부엌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저벽 저벽」分明히 발자욱 소리도 들리지 않는가? 머리카락이 위로 솟구쳐지며 마구 가슴이 뛰었다.

「도둑이로구나 부엌에 도둑이 들었구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채 나는 아빠

를 깨우려 했다.

「여보 여보..... 부엌에서 지금 무슨소리가...」

「.....」

모기 소리만 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아무 반응이 없다.

「여보. 여보」

나는 아빠를 흔들어 깨우려 열자리를 더듬었으나 아빠는 거기에 없었다.

「어디를 갔을까? 혹시 나한테 마취약을 뒤집어 씌운 도둑놈이 아빠를 끌고 밖으로.....」

그 경황없는 속에서도 내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간 것은 이런 추측이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아무리 소리를 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숨을 몰아 쉬었다가 악을 썼다.

「도둑이야——」

내목소리가 의외로 앙칼졌던 모양이었다. 이때 부엌에서는 또한번 「땡그랑」하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문짝이 열리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놈, 여학교에 다니는 딸이 황급히 「어머니」하면서 내방으로 들어오고 밖에서는 놀런 개가 사정없이 짖어대 글자 그대로 집안은 온통 난리터로 변했다.

「애 부엌에 부엌에..... 뭐가 왔어.....」

아들놈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부엌문을 열어쳤지만 나는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

다.

「누구야」 아들놈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더니 이어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여기서 무엇하세요?」

「에헴…… 왜들 야단이냐?」

아들놈을 따라 들어오는 과자마 바람의 아빠는 머리를 굽적굽적하면서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당신이 부엌에?」

「그래, 웬 난리야? 나 당신 도둑이야 하는 소리에 놀래 그만 찾잔만 하나 겠우. 무슨 여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

「부엌에는 이밤중에 무엇하러 가셨어요? 난 10년 감수 했어요」

큰 아들놈은

「전 어머니 때문에 큰 불효자가 될뻔 했어요. 아버님인줄도 모르고 그냥 내려 칠려고 했거든요」

「애끼 이놈」

은 식구는 깔깔대며 한바탕 웃고나서 각기 제 방으로 건너갔다. 아빠는 무표정하게

「푸로판·가스」 꼭 써야하나?」하면서 잠자리에 들고자 한다.

「똥단지 같이 「프로판·가스」는 무슨 소리가요?」

「아니야 자, 내일 이야기하지」

. × × ×

다음날 아침 밥상을 받은 식구들은 전날밤의 대소동 사건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다. 아빠는 오히려 더 놀랐다고 했다. 아빠가 부엌에 간 것은 「푸로판·가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낮에 직장에서 불조심에 대한 계몽영화를 보았다고 했다. 그중에서 「푸로판·가스」의 무서움을 안 아빠는 자꾸만 부엌에 있는 「푸로판·가스」가 위험한것 같아 잠을 못이루었다가 살며시 자리에서 빠져나가 「푸로판·가스」꼭지는 잘 잠겨있나? 냄새는 나지 않는가? 를 검사하고 또 영화에서 본것처럼 연결부분에 비눗물을 발라보

려고 비누를 찾다가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한번 안쓰는것 같은 아빠가 과자마 바람으로 부엌에 들어가 더듬더듬 「푸로판·가스」조리대나, 「가스」통을 매만지고 다녔을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웃음을 참을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빠는 불에 무서움을 들려주었고 사소한 부주의가 주는 엄청난 비극등을 예를 들면서 열심히 알려주는 바람에 나나 우리아이들도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후에도 아빠는 불조심에 대한 「팜프릿」을 갖고와 여러번 당부하곤 했다.

그후 아빠는 전열 연결 「코드」도 바꾸었고 탄 자리가 있는 「소켓」도 바꾸고 했으며 나도 폐 불조심에 대해 神經을 쓰기 시작했다. 아빠는 그후에도 「프로판·가스」에 너무 신경을 써 나는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아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푸로판·가스」 조리대를 철거하기로 결심했다.

「프로판·가스」를 안쓰기로 작정했다는 내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그 밝은 표정…….

그후부터 우리 식구는 불조심에 더욱 열심이다.

10여년 동안 편하게 「푸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살던 내가 연료 도구를 연탄으로 바꾸고 보니 갑절의 힘이 들지만 「푸로판·가스」조리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할 때 보여준 아빠의 그 안도의 모습이라고 할까 그 표정을 생각하면 피로가 싹 가시고 만다.

아빠가 불조심에 이렇듯 애를 쓰는데…… 나는 재떨이도 더 사왔고 석유난로 옆에는 모래주머니도 마련해 놓고 하다보니 돈도 들고 힘도 더 들지만 안심하고 지낼수 있어 기쁘기만 하다.

막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들어왔으나, 곧 이어 아빠가 또 한바퀴 돌게고 밤늦게까지 공부 하던 큰 아들놈이 마지막으로 한바퀴 돌고 잠자리에 들테니까, 이제 잠을 청해도 좋겠지.

(끝)